



...우리의 目標...

- 1 在日僑胞의 救靈
- 2 祖国統一의 實現
- 3 韓・日兩國의 和解

第23回 總會長에 吳允台牧師를 選出 總會

日時 10月17日(火)~19日(木) 3日間. 場所 京都教會堂. 總代37名中12名欠席、
55名出席、 總會가 開會되다 總會禮拜를 副會長 金德成牧師司會. 總會長
田永福牧師의 說教、吳允台牧師와 裴琪煥、黃義生兩牧師、金郡化、金漢弼兩長
老의 陪餐으로 嚴肅히 聖禮典에 參與하고 끝마치다. (下記는 議事會記錄인)

60周年 記念行事 計畫案을 可決

서기 감독감독자의 사회로 개회식 회장의 개회사 서기의 회원점명 의장의 개회선언이 있은후 총무 이인하목사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어 약간의 회순변경을하고 채택하다 회록서기선출은 현 서기부로하고 서기가 전회록의 결의사항만남등 각부서 작년도활동보고는 심사위원을 선출하고 윤종은 최창화 양목사 강중구 박원섭장로에게 검토를일임하고 임직원개선에 들어가다 긴급동의가있어 금년부터 임직원의 임기를 2년제로하자는 건의를 채택하고 임직원을 선출하니 다음과 같다

▲총회장=오윤래 부회장=최정수 ▲서기=감독삼 부서기=유석준 ▲회계=김광수 부회계=김관옥 ▲전도국장=김원치 ▲교육국장=배기환 ▲청년국장=황의생 ▲부녀국장=정인수 ▲후생국장=김재술 ▲선교국장=김덕성 ▲시위국장=전영복 ▲치리국장=오윤래 이상 이어서 임직원회결정에따라 각국과 각위원회의 조직을 승인하니 각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재정위원장=김경찬 ▲문서위원장=정인수 ▲KCC 위원장=박명준 ▲전출위원장=유석준

(3) 건의안 검토심의

① 謹布교회교역자 청빙 요청 및 교역자 생활비 보조 요청 임직원회 회부가결
② 立川전도비요청전 전도국 회부가결

③ 仙台北척전도비 요청전 전도국 임직원회 회부가결

④ 장로 1명증원 요청전 平野교회 1명 岐阜교회 1명 福岡교회 1명을 허락승인

⑤ 목사관선 추비보조요청전 横浜교회 건축위원회에

회부가결

⑥ 下関교회개척비부족에 의한 일본국내모금허락요청전 허락승인

⑦ 교회당개척비보조요청전 豊橋교회 건축위원회에 회부가결

⑧ KCC 회관과大阪교회당을 합동건축하자는안건은 임직원회 KCC 위원회 건축위원회가 여러가지로 검토하면서 이것을 추진하되 불가시는 大阪교회에 관하지 않고 大阪지역내로 하고 래총회시에 자세한 보고를 들은후 심의하기로하다

⑨ 선교70주년을 기념하여 東京교회별명 전설안건 승인하다

⑩ 교회집사를 만65세가 지로하고 명예집사제를 두자는안건 목사 장로문제까지 포함하여 연구하도록 선교국에 회부가결

⑪ 경제연구위원회설치건 선교국회부가결

⑫ 청소년지도에관한 건의안 (본국시찰과 학습운동원조대책 전도 교육 직업문제와 인재양성을 위하여 세계각국의 협조를 받자) 선교국에 회부가결

⑬ 關西지역에 소중고교의종합학원(및손)을설립하자는안건은임직원회회부가결

(4) 선교60주년 70주년기념 행사에관한 공개토론포고 (질문)

① 년대60주년을 명확히 하라 11항7 기도문작성불요 —윤종은—

② 23항 大阪 시내 (生野) 에전도소를 더두는것이효과적이다 —이정일—

③ 15항 본국실행위원회에 유원근책을 넣을것 본국에서 60주년축하회 추진하라이행사는 위원뿐만 아니라 전교회 전선도가 참가하도록

하라

—전영복—

④ 인구와도시집중경향을 중시하고 大阪지구에 3배로 서전도소설치하라—최창화—

⑤ 취지문중 선인명전에 선인(先人)들에게로 정정하라 기념논문집에대한 질문 —맹천휘—

⑥ 일본인과의문화교류와 친선과화해를 도모한다는조목을 실천목표에 넣자

—김한필—

⑦ 14,15,16항의 후원회 에관하여 그명단작성에 어

느 정도의 본인의 동의와 협력의 약속을 받았느냐?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적인 협력을 얻는 노력을 하라

—권태악—

⑧ 선교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총대원들이 먼저헌금하여 이사업추진에 성의를 표시하자 —이인하—

⑨ 7항 기념행사 3,4,5항 의구 체안을내라 시일이없다 교정전국수양회를 본국에서 합수있겠는가 —정수현—

⑩ 기념27에대회예산없다 세우라 18항 수입국내를일 본국내로 외부유지를 본국유지로하라 —김재술—

⑪ 일본국내 우리총회밖에있는교회를 이기념행사에 같이 참가하도록 건의한다 —윤종은—

⑫ 11위원회 우리교회역사에익숙한 선배들을 넣자 —홍영기—

⑬ 예산1.200만원 가능하겠는가 —최정수—

⑭ 예산지출면에 소비예

산 많다 개척전도 사업비등 건설적인 예산없다—홍영기—

이상을 절의응답하고 초안가결하다 직후로 선교60주년 기념행사를위하여 자유헌금을 하여 최정수목사의 감사기도가 있었다 헌금 발표 헌금118.950원 약속648.000원 합계766.950원 (약속헌금중에는 김한필장로의48만원 헌금이 있었다)

(5) 기타

① 下関교회 白衣유치원에 관한건

교육국장배기환목사의 경과보고 실정보고를 홍영기목사 이선조장로 하다

총회장오윤래목사가 다음 3점을 권고하다

가, 운영경과보고를 착실하게 교육국에별것

나, 교육국의 권고를 잘받을것

다, 건축보고를 자세히할것 (계속)

秋收感謝節을 마지하면서

崔 正 洙 牧師

매년매년 신년을 맞이할때 금년은 어떻게될까? 하고 살일에대하여 자녀들공부시키고 진학시킬일 사업경영에대하여 염두를하나 금년도 어느덧 살아와보니 감사한것뿐이 을시다 때는 바야흐로 추수감사절을 당하게되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의택하신 선민이되어 모세와나호수의 인도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복지 에 들어가서 농사를하고 처음은 곡식을 단으로 묶어 굴앞에가져와 감사찬마음으로 요제를 드리고 봄에는 오순절 즉 벅추감사절과 장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유월절 곧 애굽에서 해방받은 기념과함께 일주일 식의 살대절제로 여호와앞에 예배와대안식을 전민족 교회가 지키며 즐겨하였다 그를 기억하고 지키고저하는 구주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알게되매 자유로 운신앙을 동경하며 건너가서 아메리카대륙을 개척하며 전주민인 인디안을 정

벌이나 타협하면서 새롭게 농사를짓고 신품물을 얻어 즐겨하며 저들이 먹기전에 하나님앞에 감사의예배를 드리고저한것이 1921년 북미 마사츄세츠 필마운 (구주 청교도의처음상륙지) 에 사는 거민들이 하나님앞에 감사의예배를 드린것이 시작이라한다 그후 북미에서는 추수감사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친족 가족들이 한곳에 뭉쳐서 농작물 감자 호박 과일 철면조등을 가지고 하나님앞에 드리며 가족에 즐겨하는일을 하있는데 그후 계속하여 쥘-지-와신통 대통령 때에도 감사주일을 공휴일로 예배를드렸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1월 3목요일을 감사일로지키고 루즈벨트대통령의 20세기에 와서도 11월 3목요일을 공휴일로정하여 하나님 감사의예물을 드리고 즐겨하는일을하였다 그와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일찍 부터 농사를짓고 추수할때에 11

월에는 추수감사절로 곡식이나 과일이나 헌금이나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와서 즐겁게 예배를드리고 온교회가 즐거히찬목하며 감격에넘치는 예배의날을 지켜왔던것이다 필자 본인도 38년전 첫감사주일에 곤란한중에서도 처음으로 조(粗)한가마니를 첫연보로 작성하여 바친기억이 있다 그때의 하나님앞에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한기쁨과 마귀와죄악에서 해방받는다는 감격에넘치는 주 예수님을믿는다는 말로 표현할수없는 기쁨은 힘에넘치도록 감사를 드러본사람이 체험하는일인줄 압니다 이감격은 일본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첫가을감사절을 당하여 수적은성도들이나마 마음뭉어 감사의예물을 드리며 예배를드리고 어느때는 떡도만들고 잔치도하며 온교우가 즐겁게지내고 밤에배시에는 2 부축하에배로 온교우가 가족단위로 장끼인찬송이나 주일학교생들의 특별순서로 참으로 즐거운생활을 한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성도들도 감격에 넘치는 감사주일이 있으시기를 바라 소감과함께 감사의인사를 드리나이다 (大阪교회 목사)

感謝하는信仰

姜 重 求 (東京教会長老)

사람은 신자나불신자나 누구나 자기에게 덕을 끼칠 때는 감사하고 해를 끼칠 때는 원망을 한다 감사에도 신자로서의 감사하는 것과 불신자로서의 감사하는 것이 어구 자체는 같으나 생각하는 의미의 용도가 전연 다르다고 본다 나는 여기에서 감사절을 앞두고 신자로서의 감사하는 신앙에 대하여 조금 생각하고저한다

사람은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경제적으로 부할 때도 있고 빈할 때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적 소유가 풍부하면 좋아하고 물질적 소유가 없으면 걱정과 원망을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의 본능이다 그러면 우리 신자로서의 취할 태도는 물질이냐 있던 없던 부하던 빈하던 좋던 나쁘던 여하간에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될 때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참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나는 이 복음신문을 통하여 신자로서의 아래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저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를 십년 이십년 혹은 삼십년 오십년 혹은 몇 대째 크리스찬·호에서 자라민어왔으며 주일은 한번도 빠짐없이 밤에 배와 수요일 기도회도 빠짐없이 꼭꼭 교회로 나가고 교회일도 잘 받들어서 봉사하는 데 내가 적어도 교회목사요 교회전도사요 교회장로 되고 교회집사 되고 내가 제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홍/너희들이 무엇을 떠드느냐』 이렇게 코웃음을 치면서 자기만족에 빠지기 쉽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일반 평신도나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짓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악성에 몰들어서 이야말로 이중인격을 가지고 예사로 거듭하면서 자기의 권리와 임무는 조금도 수행할려고도 생각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신자 이상의 부패성 가지고 있는 오늘에 이러한 신자가 있다면 이어져 한심한 일이

아니며 이어져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금일의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발전되지 못하고 침체 상태에 있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 일본 속담에 냄새나는 것은 두껍을 덮어두라는 격으로 두껍을 덮어둘 것이 아니라 속에서 썩어 냄새나는 것을 갖다 버리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두어야 냄새가 나지 않는 것같이 또 몸에만 중기에 썩은 고름을 짜내지 않고 그 대로 두면 점점 몸이 부자연스러워져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 고름을 짜내고 약을 써야 몸이 자유스러워지는 것같이 금일의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발전되지 않는 책임이 목사나 전도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장로 집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있다 나 자신이 완전히 자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새로 지음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남을 대할 수 있으며 감사의 생활,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말로는 간단하게 얼마든지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돌볼 수도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으나 그 실행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가리움이 없는 맑은 물과 같고 맑은 수정과 같이 순수한 신앙관계를 가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마음에 충만한 생애를 보낼 때에 명실공히 진실된 신자라고 볼 수 있으며 그는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1967년 독일 연간을 회상할 때에 좋은 일과 나쁜 일 때로는 기쁜 일과 슬픈 일 혹은 병이나서 고통을 당할 때 또는 순경과 역경에 이를 때 혹은 남의 마음을 앞으게 할 때 혹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 형형색색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나쁜 것은 반성하고 좋은 일은 더장려하여 앞으로 전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로서 맡겨진 사명의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도록 주님께 끊임없는 기도와 분투노력해야 한다 신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감사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은 분리하여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태도는 참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생애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

(東京교회 장로)

信徒를 위한 「에베소」 書研究

⑦ 尹 宗 銀 (西宮教会牧師)

⑤ 그리스도의 몸 1 장의 마지막 두절에서 바울의 위대한 사상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하였다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본서의 기본 사상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세 계에는 온전한 일치가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헬라인과 야만인 사이에 같은 민족 사이에 일개인 마음 속에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으로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온 우주에 불일치의 요소들을 지탕하여 하나가 되게 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위하여

여 족으셨다 이것이 바울의 주제이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 사이에 화해의 중보자이다 이제 이 진리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한비유로 생각해 보자 어떤 위대한 의사가 그의 실험실과 병실에서 연구를 계속하던 중 암을 고치는 약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약은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되기 전에 세상 에 특허되지 못한다 그럼으로 모든 의사들은 이 약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 약을 사용하는 방법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유효한 약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일개인이 그것을 온 세상에 특허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국가의 후생성에 서는 그 약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을 결의하며 의사회

에서는 그것을 엄밀히 검사한 후 그것을 가지고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는 실행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한 사실이 꼭 그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달하는 기관

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는 곳이며 심부름가는 발이며 그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이다 예수께서 온 세상에 만물을 충만케 하오나 그 중만은 교회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이 몸을 통하여 온 세상 어디서든지 활동하고 있다

박우만 선교사를

보내면서

홍 영 기 목사(下関教会)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국 민족을 위하여 이바지하신 박선교사는 81세의 노령의 몸으로 지난 7월 14일 羽田 비행장을 최후로 미국으로 귀국하셨다 이 선교사의 환송회는 宇部교회당에서 7월 9일 오후 3시에 개최하였는데 이 모임에는 처음부터 심각하고 감개무량한 공기가운데서 몸여든 80여명의 회중은 그의 놀라운 공헌을 생각하고 환희와 눈물에 사무쳤으며 이구동성으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음성이 충만하였읍니다 이는 그가 1915년 8월 30일 당시 28세의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오셔서 낯설고 물 설음을 가리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하에서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복음으로 위로 해주신 것과 또 大邱 신명여학교 및 大邱고등성경학교 교장으로 계시면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키고 도와 주고 봉건적 사상이 가득찬 당시 사회에서 가정주부의 지위를 양양하고 세제 부인회의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가정생활 개선 운동을 전개하며 大邱 중점으로 시작된 부인회 운동이 1929년에는 전국적으로 조직화시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를 창립케 하셨다 이 운동은 본격적으로 발전되어 부인회 힘으로 남만주와 북만주에 선교사까지 파견하였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기리 빛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제 2차 대전이 심해지자 일본 병의 탄압은 심하여지고 1941년 2월 28일부터 모든 외국 선교사의 국외 추방령이 내려지자 그해 9월 16일 인천항 을 떠난 박선교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최후의 포로가 되어 포로 수용소에서 만 2년 7개월 간 감옥 생활을 하였으니 그 고생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었 다 고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열병에 걸려 많은 동거자 죽음

목격하였고 자기도 완전히 하나님이 부르실 줄 알았고 의사도 버려진 바 되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았으며 1945년 2월 23일 미공군 낙하산 부대가 수용소에 내려와서 구사일생의 구출을 받아 미국 가서 1년 10개월이나 입원 생활 끝에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한국의 냄새도 싫어할 정도이나 그는 또 다시 한국인을 위하여 1947년 3월 7일 大邱에도 착하니 지난날의 고생은 꿈같이 사라지고 보고 싶고 바라던 그리운 한국을 다시 오니 기쁨을 추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다 이 말을 들은 모든 회중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감탄했다 참석 한 4인의 일본교회 목사들은 차례차례로 일어나서 과거의 일제의 무서운 범죄를 새삼스럽게 느낀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죄책을 반성하여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고 눈물로서 고백하는 한 토막도 있었다 그러나 박선교사는 과거 것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면 행복이다 기뻐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 기뻐하면 성공한다 현재도 기뻐하고 장래에도 기뻐하라 하시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탄압이다 내 몸의 뿌리가 너무나 깊이 한국 사람 속에 들어감으로 떠나기는 어려우나 이것은 잠시 의굴바이 뿐이라고 하였다

안 림

弊社에서는 韓国語를記入한 「크리스마스 카드」 「年賀狀」을 準備하여 敎友 여러 方들의 人事交換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敎友들의 많은 注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連絡처 電(661) 4669 僑文社

青年問題研究会発題

— 3 —

青年運動の昨日

李 仁 夏

主題「在日大韓基督教青年
会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主牧 金元治牧師

研究発題者

「어제 (昨日)」

俞錫濬 長老 李仁夏 牧師

「오늘 (今日)」

崔秀賢代表委員 黃義生牧師

「내일 (明日)」

鄭寿千 牧師 崔正洙 牧師

整理者 (司会者)

金瓊燦牧師=어제 李昌雨牧

師=오늘 金得三牧師=내일

記録 鄭寿千 崔忠植 (文責)

主催 青年局

青年問題研究会

私にとって過去の歴史は、自己批判にでも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育ちゆく現代の青年を見る時、仕えて来たという事柄や、結果に対して責任を感じるのである。

私にとって大変有益な資料となったのは、第14回教育全国修養会ハンドブックで、これは、教会全体から青年会運動の動きを抱えており、歴史の土壌の中で回顧されたすぐれたものである。過去の青年運動における人々や年間主題などを通して見て考えて行きたい。青年会運動を考察する時協議会の目的を先ず知る必要がある。それは連絡と協議が基本であり、交りに生きる、そしてその事は信仰においてなされるべく育成されていく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だ。宣教と証しと奉仕キリスト青年達がどの様なミッションをもって生きるのか即ち、教育と宣教、教育と伝道が問題にされるのである。戦前の歴史において、キリスト教青年壮年達は圧迫を受けた民族としてそのことを通して、使命に生きて来た人々であり、時代であった。指導者は本国から来られ、活動そのものが教会を形成するということが連結された。自由を得ているということにより、3・1独立運動をなしたのであり、YMCA 崔承満総務から聞くとところによると青年がお互に出逢うことにより、即ちそれが独立運動に移行したほどであったということだ。戦後において見るならば、第一期1945〜53年、勉勵青年会連合会の時期組織中心から考えて行く時に

は妥当なものであり、内容面から見ても俞錫濬長老の言も適当といえる時期だ。

第二期 1954〜62年中央委員会制度の時期

第三期 1963年〜現全国協議会成立

第一期を説明すると、総会全体から見た場合、在日大韓基督教の形成期にあったといえる。戦前は母国と密着した教会であったが、戦後、渡日運動は急速に困難になり、母国との関係を離れて総会を形成させた。歴史的に流動的な時期であったために、祖国に帰っていく引きあげの時代において、当時の教会は60万名の数字が定着するものとは、思いもしなかったことだ。日本は一時的な場所であり、天幕を作って礼拝を見ようじゃないか、それが神の御旨なんだから。神の恩みの業であった。その姿勢はあくまでも母国に向って立っており、連合会の集まりのたびに讃頌歌찬리반도금수강산(459)を歌ったものである。連合会青年会の活動は、或る意味において母国の模範といっても良い位이었다。査経会、雄辯大会、全国修養会、夏練会などであった。ハンドブック p41 p42、p44に記載されているように暗中摸索をなしていたといえる。夏練会最後に20名程集まり、金윤진 이종선 한재千氏が指導し、金長老が訴えるに従ってますますギャップが生じ、弱体化していった。この当時誰れが立っても欠点が生じたであろうし時代の変遷を無視することは出来なかった。在日60万の数字において社会的変化が生じたといえる云うなれば質が戦前と戦後に於いて変わったということだ。社会的な分析をするならば1950年当時残された60万は日本人と同じ様な傾向があった。人口的には男子が多くて、女子が少なかったが、次第に男女同等になり、日本社会の人口率と同じ様になっていた。同時に若者 (一世であるが) が日本で教育を受けたということが見落してはならない。祖国が分裂するに及び、1953年の南北動乱がより一層の迫車をかけた。日本で教育を受けた特に若者たちは、日本社会、教界で出版された信仰雜

誌を読みふけた。特に神学の背景は日本であり、その中でも指導者が日本教会で育って、韓国人教会に来た指導者 이종선 牧師がおり、韓国にある日本教会で育った金윤진 先生もいる。又、金元治牧師は日本でキリスト者になった。若い層では金光洙、南宮、金徳洙氏が本国で養成されたが中にも大阪大学YMCAで基本的な訓練を受けた南宮氏は当時、掻き立てる様な運動をなしたといえる。私の場合でも下宿当時、日本教会の先生を通して育てられ、戦後韓国教界に日本教会の影響を受けて入ったものである。これが発散の基本的な基礎となったといえる。東京教会に視務中民族教会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知り、喜び、日本教会と韓

いよいよ

新しい時期に入る

1953年

全国準備会を開くに当り中心的な運動をなさったのが金元治牧師の恩師同志社大学の魚木忠一先生であり呼応して新しい層の青年たちが立ちあがった。この時代を自己自身を形成する時代とも云える。又一つ問題は二世のキリスト者青年がぼつぼつ胎頭しはじめたことである。当時の主題観点は、イエスの福音をどの様にして受け入れるのか現実をどの様にして生き抜くのかということであった。1954〜1959年の間全体の傾向として信仰問題が中心で、信仰と教会、信仰と現実などであった1953年の南北動乱により、共產主義問題が討議された。実は信仰と現実との関連から出発し始めたということでありこのことは喜ばしいことであった。しかし、現実と関連させてとらえた最初の出発はよかったが、現実の深さにおいては、薄っぺらのものであったというのは、福音を知らないものが殆んど対象であったための弱点である。1954年聖書と現代人によりイエスの福音をどの様に信じるかが問題になったが、1955年笠信大郎著「ものの見方」が非常によく読まれ、これが契機になって、1956年にはキリスト者

国教会との気質が異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った。困難なことは韓国教会の保守性であった。自由な立場で育ったが故に、教会の体質が合わない面があったことは事実だ。新しい動きとして抵抗、アンティテゼとして、散発的な運動に入ってしまったのは、次の第二期であった。第二期を説明すると、総会が母国との密着的な関係を一応切った時期であり、自立の途についたのである。1955年日本のNCCに加入し、精神的なことが日本全体のレベルで考え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事実を知る必要がある。1953年大きな問題が起きた。それは連合会が持っていた指導理念を抜きとった。東京にいた金執事が大きな役割を果し、金長老に対して対抗し、更に連合会時代に働いていた人たちが土台となって、中央委員制度を作るに至り、当時、1951年カナダから帰り1952年総会に青年局が新設され、金元治牧師が初代青年局長を勤められた。

青年と教会生活ということに移行していった。今日高等部が全国夏期学校で「聖書、イエス、教会」を学んでいる様に、1957〜59年これもまた神は誰れであり、イエスは誰れであり、教会はどのようにし前進があるのか、これらすべてが聖書の問題であったと見ることが出来る。こうした背景を持ちながら、1960以後は現在まで「この世」が大きなテーマになっているといえる「証しの生活」世に仕える教会の母胎、我々の現実は何であるか、等を深く掘り下げていく時1962年60万同胞への責任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我々の行くべき道」が考えられ、1965年において「キリストにならって生きる者」として仕える者として対象を知らねばならない。そこで1966年韓日問題が問題視され、和解の僕として是出されて来たと考えられる。以上の様な過程を持ちながら、我々の重要な批判として、我々がこの社会の中で証しすべく人々を育成しなかった弱点があることだ。頭の中で神学的展開はされたもののミッションの中に生きなかった。ミッションなくしてキリスト者になり得ない。我々はイエスの福音を宣教はしたものの、真実

に生活する者がなかった。教会から離れた者が多く戻って来ない事実も知っておかねばならない。火がつくという火をつけないで宣教というのはあり得ない。

本国から来られた指導者の体質に対する批判を傾聴して見よう。

- ① 本国教会の良い面を失っている。
 - ② 日本教会の悪い面をとり入れている。
 - ③ 実際、自分たちがなし得ないために社会の中に出て行く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 ④ 生きた対話がない。一世が二世に主導権を与えるということがなかった。互いにぶつかり合って共に良き働きをしようことが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
- 私は最後にハンドブック p47 アンチテゼに対するジンテーゼが云々とあるが、ジンテーゼはまだないといえる。組織的にはジンテーゼといえるが全体の流れの中から見た時まだ見られない。まだ積極的な弱点を持っているといえるのである。

《質疑》

(質) 学生運動との関係はどうか?

(答) 戦前はYMCAを中心にしてあったが、戦後は一度吉野山で学生だけを集めるとの話しがあったが実際はなかった。最近日本の夏期聖書ゼミナールに参加することはある

(質) 青年連合会から中央委員会への移行の時に、若い一世が二世に与えた影響とは?

(答) 区別なく、共にプログラムを組んでやっていた。

(質) 教會的と社会的において保守的という言葉は違うだろうし、弱点が保守にあるとはおかしいのではないか?

(答) 韓国から来られた方が教会の体質が温室の中にある総会をさして、これを保守といったのだ。

(質) 解放後、青年が減少した。組織変えのためではない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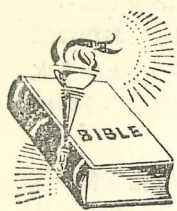
(答) 青年会が弱体化したために組織変えたのではない思想の急変がそうさせたものであり、時代が要求したものだ。

(質) 1955年NCC加入は精神的に日本教界の指導下にあったとは云えないのではないか?

(答) 教勢が減少したが日本教界と関係が結ばれた。

(質) 年間主題の決定は、どこがするのか?

(質) 中央委員会で行う。



聖書

山に向って目をあげる

討 121

人生の苦しみや悩みの中で救いを求めている詩がこの121編である。この世で救いを求めても頼りにならないので、天地の創造者である神にその救いを求めたのであり、又その神は今にも隣みはずしそんな危なげな歩みを守りしっかりと歩かせて下さるのである。(詩91:10~12) 神様は私たちを昼となく夜となく休み給うことなく私たち守って下さる。(ルカ2:37、第1テモ5:5) そうして私たちを災いから逃れしめる。(イザヤ53:4、詩27:5) 仕事に出ていく時も、仕事ですんで家に帰る時も守って下さる。(申28:6) 人間はこうにして頼りになる神をつねに求めるべきである。それは一回求めて一生動揺す

ることがないように不変なものでなく、常に変わるのが人の心だからである。(詩73:26) ②山に向いて目をあげるとは神に祈る姿である。皆から山は何か厳密な雰囲気の中で宗教心をさそうようである。イスラエルの人々もこの山で礼拝を捧げ(ヨハネ4:20) モーセが十戒を与えられたのも山であった。(出20:1~8) 主イエスが八福の教えを教えられたのも山に登ってであった。(太5:1~12) 仏教も深山や高い山頂に大きな寺を立てている。しかしそれらは、山に特別な神秘的な力があるのではなく、山は動かないどっしりとした頼ることの出来る気がするかも知れない。しかし山はあくまでも神によって創られたも

のである。(ヨハネ1:3) だから詩人も救いは山からくるとは言わずに、天地の創り主なる神から来ると言っている。(詩24:3~4) ③海は風雨やあらしによってゆれ動く(ヤコブ1:6) けれども、山はこんな風雨や台風にもびくともしないのである。これは常に変わる人の(ルカ22:33、ヨハネ20:26~29) 心にとっては実にうらやましい

かぎりである。神様は私たちをどんな悩や苦しみや試練にも動揺しない(太7:25、ヤコブ1:12) あの山のようなどっしりとした不動の信仰を賜るように神に祈る姿が山に向いて目を上げる姿勢である。(エペソ4:14~15) 山の上の町は隠れることなく、多くの人々によく見える。(太5:14) 私たちの信仰も、陰にかくれたものでなく山の上の町のように多くの人々に主より受けた恵みの光をもって照らすようにしたいものである。山に向って目をあげて祈る者の心は永遠に変わることのない神への信頼で生きる。それはキリストをみあぐる信仰者である。(ピリピ3:8) (西成 金元治)

もあつた。

▲金元治牧師—

被指導者に引きずり廻されたことは決してない。体質改善を青年会運動から起こされた。東京地方青年会では、当時、共産主義に対する伝道、青年の就職の問題を総会に提出した事実もある。

▲司会—

年令の区分に関してどうか、35才に下げたため不活発になつたと云われるが……

▲李仁夏牧師—

対話が出来なくなつたことは事実であつて、むしろ戦後の青年会を活発にさせた要因になつていと思う。ただし、信徒会運動が継続されなかつたことは指導力のなさや対策がなかつたことが上げられる

▲金元治牧師—

実際、家庭をもつた人々の現状からヤレヤレヤットといった時期でもあつた。

▲金徳洙牧師—

年令が大巾の時、若い青年が長老、執事の発言が強すぎて去つていったものもあつた。

▶金元治牧師—1957年頃女子部高等部を創設し、久保白先生をお呼びして性道德について特別講演をしてもらつたりもしたが、反対が多くて失敗したこともあつた。

▲司会—

年間主題を具体化していく作業が足りなかつ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金元治牧師—

確かにそうだ、韓国の良い気質がなくなり、理論ばかりに走つた。

▲李仁夏牧師—神学時指導はあつても実践がなかつた。

▲鄭寿千牧師—吉野山ではファイトが盛れていたが、神学生が出すぎたきらいがある

▲黄義生—青年会内の対立を收拾する程度で、実際はロボットの存在であつた。

▲崔正洙牧師—本国から来た青年が共産主義運動がとられたりし、あるイデオロギ運動が盛んになり不温なものがあつた。

▲司会—1952まで勸励青年会であり、1953~62年中央委員会(地方代表による)1963年以后(実施は1964年からであるが)全国青年会になった訳だが一言でその事について▲李仁夏牧師—中央集権が強すぎると見られた訳だが、それは各個教会から中央が浮いていたためだつた。中央委員会全国委員会といった様に二つの名称が作られもした。中央→地方→各個教会の様な連絡であつたが、中央→各個

十一月カレンダー

秋深くなつた。だが、11月の声を聞くと、何となく秋深くなつたと思うだけで、山の上から下つて来る紅葉、さる木々の姿など、眺める時間とてない今日のこの頃である。日本と言う風土に秋がなくなつたと言うのではあるまいが日本の社会生活に「もの静かに秋を思う」心のなくなつてひさし。だからとて、私共の教会生活に、秋を感じる心のなくなつて良いと言うことではない。しかるに、この社会と同一歩調をとらねばならぬ如くに、急激に教会の行事が流れて行く。これで良いのだろうか。もつともつと、静かに深く、主と主のことがらに関する総てのことを思いめぐらす日があつても良い。否、なければならぬ。牧師が説教の準備をする時間が充分にならないと言うことは、良いことではない。イヤ それを自慢している方もいる。この秋にこそ、もつと深く説教の根廻しがあつても良いのではなからうか? 又地方会は日常茶飯事で、秋深い時には集めぬのも良いことではなからうか。そのことが来年60歳の行事の本当の準備になると思うが

★ ★

一つ内輪のことであるが、こ

の頃礼拝の時間にちよくちよく電話が鳴く。それは地方連合会とか中央委の主催する集会有る時に限つてである。そして概して、主催者側の一人又一人から連絡の電話である。非常識もはなはだしい。集会の時間中は電話をしてならないことは、百も知つておりながら、主催者側の一人であるから良いと言うのだろうか? それなればなお悪い。何となく人間として、青年として基本的な常識に欠けている様に思う。今さらの如く、「キリスト者である前にまず人間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言葉が胸にしみる。

★ ★

ついでにもう一つ、連合婦人会が養老院建設の為に募金をしている。各教会に30万、20万、10万、5万と割当てあつて、12月中旬までに募金責任者に送る様にとある。これでよいのだろうか? 彼女達の行事の為に募金は地方の教会がして送る。何かずれておりませんか。

教会一つ建てるのにも、その教会の牧師、役員は姉妹教会を訪問しながら募金しているのに……… 婦人運動全体の根本的な何か問題がある様に思えるが……… どうも。

(寿)

『青年運動の昨日』問題整理

整理者 金 瓊 燦

▲金元治牧師: 全国連合会から中央委員会に変わった当時を少し話して見たい。1952青年連合会の指導者であった金元治長老が熱意をもって当って来たが、人が寄つて来なかつた。逆に地方会から青年局新設が提案され(その翌年婦人局設置)局長・金元治、書記金元治、執行部牧師ということになった。金元治長老から「今の青年会は石化してしまつたので、私にはどうしようもない。お手上げだ。」こんな意味の手紙が手元にとどいたのであつた。事実、終戦直後は解放の喜びで150~160人が集会に集まりはしたものの連合会組織では頭でつかちで活動部がいくらか動きがとれなかつた。そのため、中央委員会が執行していく様になつた。40才までの青年であつたため、親子で青年会員になつてたということもあつた佐波江の全国修養会でこの連合会制度の解散総会を行い、1953年11月23日大阪教会で全国中央委員会が設立された。年令制限を35才とした。連合会組織の弱点は青年のみが動いていたが、実質の指導機関がなかつた。青年局設置後は全国組織を指導し得る青年会になるために、訓練がなされもした。又、当時全国修養会の主題講師に日本人講師を招き続けたという特徴があつた。

▲金元治牧師。それには当時韓国から渡来した青年たちは在日韓国教会牧師に対する不信があり、「聖書のみ」をか

かげ、現実の状況に対して希薄であつたことなどが原因としてあげられるが、牧師とよく対立した。牧師は時代の思想の波の激しさから信者を守るということ、赤化を恐れ、そうした保守性にあつたようだ。グループの大きな流れとしては、南宮、朴勲舟ラインと金振玉、金光洙、金徳洙、張尚宰ラインがあり、却つてこれがそれぞれの特徴を示しかつた協力体勢にあつて強力なものになつていたともいえる。規約作成の際、青年局と青年会とが対立したりもし、日本キリスト教指導者を招請して指導をしてもらつたようだが学校を犠牲にして青年会活動に身を呈した時代だつた。1957年頃から疲れが見え始め栄養の補給の意味で幹部養成講座などが設けられた。1958年特記すべきことは、韓国人が日本語で講演をなしたことに対して批判が爆発、しかし、ここで、それに対する対策が講じられなかつたことは大きな問題であつた。歴史的必然性がそれとも指導理念のなさが用語問題をそうさせてしまつたのか。反省すべきである。

▲李仁夏牧師—日常語は国語で分つてはいるものの、深い所で理解出来なかつた点、又修養会で理解出来る喜びもあり、福音を受け聞くために日本語でなされたものであつた。

▲鄭寿千牧師—

こうした日本語使用を人気取りの一つだと批判されたこ